

2011.03.14 미래정책연구실

□ FAO, 세계 식품가격지수 또 사상 최고치 경신

1. FAO, Financial Times(2011.03.03), The Wall Street Journal(2011.03.07)

주요 내용

- 지난 3일 FAO는 2월 세계 식품가격이 1990년 관측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던 1월의 231포인트보다 2.2% 증가한 236포인트로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함. 이는 **지난해 6월 이후 8개월 연속으로** 증가한 것임.
 - 곡물가격지수: 1월 245포인트 → 2월 254포인트로 3.7% 증가. 이는 2008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임.
 - 유제품가격지수: 1월 221포인트 → 2월 230포인트로 4% 증가
 - 육류가격지수: 1월 166포인트 → 2월 170포인트로 2% 증가
 - 오일/지방가격지수: 1월 278포인트 → 2월 279포인트로 증가
 - 설탕가격지수: 1월 420포인트 → 2월 418포인트로 2.1% 감소
- 또한 FAO는 이상기후로 인해 주요 곡물생산국의 생산량이 감소하여 **올해 곡물가격도 전년대비 70% 이상 상승**하였으며, 2010/11년에 국제 곡물 수급불균형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함.
- 이처럼 세계 식품가격의 상승세가 지속됨에 따라 FAO와 IMF는 **식품가격의 상승세가 장기화**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함.
 - FAO의 국제무역 및 시장개발국 이사인 데이비드 할람(David Hallam)은 “예상치 못한 유가 급등세로 이미 큰 폭으로 오른 식품 가격이 더 인상될 것이다”며 식품가격의 불확실성이 높아졌다고 주장함.
 - IMF의 상품전문경제학자는 “식품가격 상승은 빈곤·취약국가에 큰 타격을 주기 때문에 현 상승 추세가 우려된다”며 “식품가격이 오르면서 공급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수급불균형은 완화될 것으로 전망되지만, 공급이 늘어나기까지는 몇 년 이상 걸릴 것”이라고 주장함.

- IMF는 개발도상국과 신흥경제국들의 정책입안자들이 급등하는 식품 가격과 변동성에 대비해 신속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함.

2. 시사점

- 최근 중동지역의 정치 불안정으로 인한 유가불안으로 국제 곡물 가격 상승 압박이 커지고 있음.
- 국제 식품가격의 추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최근 세계 식품 가격 상승에 대한 장·단기 대응방안 수립이 필요

자료작성: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미래정책연구실